

감사

왕하 2:6-12

왕하 2: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제목이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에는 “비교의식” 함께 들어있지는 않은가요? “비교의식”은 우리의 감사를 망치는 마치 포도원의 여우와 같은 겁니다. 진정으로 삶의 감사를 회복하시려면 비교의식부터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제자였고, 스승이 담당한 영적 소명과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은 인물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였나요?

첫째, 엘리사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인 엘리야가 간 힘든 길이 얼마나 가치있는 삶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것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둘째, 그는 감사할 줄 알고, 충직하며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대한 깊은 감사를 마음에 품고, 엘리야를 끝까지 수발하고, 마지막 발걸음까지 수종 들었습니다.

* 룻 이야기 예화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 눅 17 장, 10 명의 나병환자 이야기 예화

나눔을 위한 질문

1. 여러분은 이미 받은 9 가지를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받은 1 가지에 더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까?
2.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이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데에는 그의 영적 분별력과 감사하고 충직한 성품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는 엘리사의 어떤 부분을 닮고 싶으신가요?
3. 감사는 영적 축복을 불러오는 촉매입니다. 내 삶에 감사한 제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